

해남 'D등급 노후 저수지 보수사업' 본격 추진

국비 25억원 확보... 현산 원진제 등 4개소 누수방지 보강 등 사업 실시

해남군이 'D등급' 저수지 4개소 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위험등급 저수지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펼쳐 현산면 원진저수지, 마산면 학의저수지, 산이면 건촌2저수지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대상 저수지에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 작업과 함께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통 및 복통 교체, 저수지 내측 침식을 막기 위한 사석 쌓기 등을 실시한다. 현산 원진저수지는 물넘이·여수로 신설과 저수지 준설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마산 학의저수지는 저수지 준설을 추가로 실시한다.

전국 최대 농업군인 해남에서는 저

수지가 꼭 필요한 농업시설로,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한편 강우 시 우수의 저류를 통한 홍수량을 조절하여 배수를 돕기도 한다. 그러나 저수지 붕괴 시 피해가 매우 크므로 지속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남군은 군 관리 296개 저수지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펼쳐오면서 2018년 3억원, 2020년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쌀귀리 재배 1번지 강진, 본격 수매 돌입

올해 2000톤, 35억 원 수익 기대... 국수 등 가공식품 개발

최고품질의 강진군 쌀귀리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추위에 약한 쌀귀리 재배 적지로 알려진 강진군은 2008년부터 꾸준한 쌀귀리 재배 기술 및 면적 확대로 전국 최고품질·최대면적의 전진기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약 250여 농가가 계약재배로 약 700ha의 면적에서 쌀귀리 수확을 마쳤다.

강진군에서 재배되는 쌀귀리 품종은 대부분은 '조양' 품종이지만, 최근 '대양' 품종에서 차미 예방 물질인 Avn-C(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이 조양보다 11.9배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양' 재배 면적을 늘려 올해는 약 20ha정도에서 시범 재배했다.

특히, 지난해 국비사업인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대양' 품종 이용 확대와 가공 제품화를 위한 원료 국산 생산의 기반을 조성했다.

군은 올해는 유례없는 가뭄과 4월 이상 기온으로 수매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비 16.6% 오른 금액으로 수매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쌀귀리는 보리에 비해 소득이 2배 높은 고소득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올해 약 2000톤, 약 35억 원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영아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최고품질의 쌀귀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품질 재배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며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해 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강진 쌀귀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쌀귀리 국수 개발을 시작으로 고추장·선식·떡·빵·조청, 침출차 등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시식단을 모집해 쌀귀리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등 생산과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군 '서울국제관광전'서 최우수 마케팅상 수상

기찬랜드 개장·농특산물·힐링여행지 적극 홍보

영암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7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의 최신 관

광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관광박람회로, 올해는 '다시 만난 여행, 다시 만난 자유'를 주제로 개최되어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

했다. 영암은 작년 이어 전라남도와 함께 참가하여 최우수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암은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해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특히 7월 개장하는 기찬랜드를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영암도기, 무화과 등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최근 여행 트렌드인 힐링에 맞춰 영암군의 힐링 여행지를 추천했다.

이외에도 영암군 홍보관에서는 SNS팔로 및 퀴즈를 통한 경품을 증정하였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젊은 층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취임식 취소 '민생현장 속으로...'

역대급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 위로

신안군은 다음 달 1일 박우량 군수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민생현장을 찾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에 이어 대야도(하)의 면에서 어업인 쉼터 준공식을 참석해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군은 당초 간소하게 취임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겨울부터 이어온 역대급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신안군은 민선7기 코로나로 힘들었던 여건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1도 1무지업, 1천 1정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섬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최우선 목표를 주민소득 창출에 두었던 결과 친환경 개체굴 양식사업과 청년 여선민대사업 등 주민 소

득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박 군수는 민선8기 선거공약으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 친환경 고소득 전락사업 집중 육성,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중심지 신안, 군등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 메카, 맞춤형 교통복지로 편리한 신안 조성을 내걸었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군민이 잘 사는 신안, 문화예술이 꽃 피는 신안, 섬마다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신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할 것"이라며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살고 싶은 1004섬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진도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5일 시장서 소비 활성화·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



진도군이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김치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최근 진도군 5일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은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 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100여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군청 경제마케팅과와 읍·면사무소에 국산김치 공급과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 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한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인증 받은 곳은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견인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재영 기자

My Bucket List

영암 관광지 추천

- ✓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 ✓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

-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 ✓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월출산·기찬릿길·구림전통마을